

김주열추모사업회는 지난 1960년 김주열열사의 시신이 발견된 4월 11일을 국민화합의 날로 이름 짓고 국민기념일로 지정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에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 김영만 전 대표에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4·11국가기념일 지정, 어떤 의미인가

인터뷰 정리 · 황석선 stonesok@kdemo.or.kr

4·11국민기념일을 제안한 이유는?

먼저 1960년, 독재자 이승만과 4·19혁명의 역사를 알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당시 집권 당인 자유당은 영구집권을 노리고 독재자 이승만과 이기붕을 정부통령으로 내세우고 온갖 불법,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선거일인 3월 15일에 투표권조차 받지 못한 시민들이 수두룩했고 기표소에 유권자를 3인조 5인조로 묶어 들여보내 서로 누구를 찍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반공청년단과 깡패들이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마산 시민들이 부정선거와 독재정권에 항거한 이날의 시민항쟁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중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행방불명 되었고 마산은 3월 15일 이후 죽음과 공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독재정권은 마산을 빨갱이 도시로, 시민을 모두 폭도로 몰아갔 으니까요. 그리고 27일이 지나 마산 신포동 중앙부두에서 김주열은 오른쪽 눈에 커다란 최 루탄이 박힌 채 바다에서 떠올라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날 김주열의 시신을 목도한 마산시민들의 분노는 화산처럼 폭발했고 3월 15일 보다 훨씬 규모가 컸던 이날 4월 11일 시민항쟁이 결국 4·19혁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주검으로 4월혁명의 선봉장이 된 김주열은 당시 17세 소년으로 전북 남원에서 중 학교를 졸업하고 경남 마산으로 유학을 온 학생이었습니다.

김주열은 살아서는 남원의 아들이었지만 죽어서는 자랑스러운 마산의 아들이 되었고 4월 혁명을 통해 국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지역 정서로는 호남의 어린 학생이 영 남으로 유학을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때 까지만 해도 자연스러 운 일이었습니다. 김주열의 고향 선배들이 마산에서 학교에 다니는 이가 많았으니까요.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된 마산 중앙부두

김주열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서 문제나 지역주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1960년대 초 까지만 해도 지금과 같은 동서 문제나 지역주의가 없었다는 것을 김주열이 몸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바로 1년 뒤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집권연장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동서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49년 전 우리 앞에 민주의 횃불로 떠올랐던 김주열이 이제는 동서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화 합을 이루는 희망의 횃불로 우리가 높이 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기념일’이 아니고 ‘국민기념일’로 하자고 하셨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가?

국가기념일은 법령에 의해 국가가 제정, 주관하는 날입니다. 향토예비군의 날, 법의 날, 어 버이날과 같은 날이 현재 40개가 있습니다. 국민기념일은 국민가수, 국민여동생, 국민배우 처럼 국민들이 그렇다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불러주면 공인이 되듯이 말입니다.

몇 년 전, 처음 ‘동서의 날’ 또는 ‘국민화합의 날’ 제정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당연히 국가기념일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정치적 상황에서 자칫 정치 적으로 이용당하거나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한동안 기념일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 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국민기념일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 그대로 국 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기념일, 참 좋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정부가 이를 인지 하고 공감하면 자연스럽게 국가기념일 제정도 가능한 일이 되겠지만 국가기념일이라는 제 도적 혜택이 언젠가는 우리를 보수화, 관료화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겁이 나기도 합니다.



김주열추모사업회 김영만 전 대표가 4·11국가기념일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기념일’이라는 용어와 의미가 더 좋게 생각됩니다.

왜 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동서갈등과 지역주의는 남북분단과 사회양극화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국민화합 또는 통합이라는 말이 정치적 구호로 이용될 때 불신과 분열의 골은 더욱 깊어질 뿐이며 그 동안 솔하게 이루어진 일회성 행사 역시 전혀 실효성이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정책 입안자들의 진정성이 보장되는 국가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각성과 동시에 절박성을 느껴야 하고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 김주열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49년 전 4월 11일,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국민화합의 날을 만들어 주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부터 내년 4월 11일을 목표로 1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서명운동 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내년 4월 11일 전 국민들에게 4·11국민화합의 날을 국민기념일로 선포 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김주열과 마산상고 입학 동기인 나는 평생 김주열과 3·15, 4·19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마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김주열에 대한 사랑이 많이 식어버린 것은 물론 심각하게 왜곡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월 탓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기념해야 할 만한 각종 기념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념단체와 관련자들의 관심이 법적, 제도적인 보상과 보장에만 집중되는 문제입니다. 이는 필시 관련자들의 이기주의와 보수화를 초래하고 정신계승과는 자꾸만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예전에 무엇을 했노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 이후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아 왔는가?” 그것을 묻는 용기와 평가 기준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